

호남서 불 붙는 민주 당권경쟁...전대 본격화

김민석, 오늘 광주 전일빌딩245서 출마선언 예정 정청래·송영길 등판재미...호남 당심 공략 나서 당권주자, '1인1표·검찰개혁' 놓고 신경전 치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의 공식 출마선언이 이번 주부터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 명의 당권 주자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권리당원의 3분의 1 가량이 밀집한 텃밭 호남을 방문하는가 하면 당내 주요 행사와 전직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하며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을 이어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이날 오전 9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에 전일빌딩245가 유력하다. 이어 여의도로 이동해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전일빌딩245는 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245개의 추경 탄흔이 남아있는 건물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당 핵심 지지기반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 재임 중 전북 익산에 마련한 거처에서 주말을 보낸 김 전 총리는 호남을 한 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승수가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지역이 함께 크게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지난 4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곳 익산도, 전북도 놀랍

게 도약할 것"이라며 "익산을 넘어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구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 연일 호남을 찾아 막바지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선 데 이어 주말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연일 도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벽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에 왔다"고 알렸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결코 누구 몇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며, 더 많은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일 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비전플랙 당원총회'에 참석해 청년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송 의원은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2030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30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당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30 특별위원회에 2030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그 최고위원이 2030 특별위원회 의장을 맡겠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이 총력으로 나서야 한다"며 "라떼, 끈대 문화의 민주당이 아니라,



대화하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왼쪽부터)와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686 민주당이라는 문화가 아니라 새롭게 역동하는 2030세대, 대학생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민주당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3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정권 재창출이 민주당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 요구 논쟁으로 정권을 헛기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당권경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특별시장 송 의원 지지자들은 지난 3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송영길 국회의원 당대표 출마 촉구 대회'를 열었다. 송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다면 김·정 두 주자에 이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 의원의 최종 선택이 전당대회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아니면 직접 당권 경쟁의 승

부수가 될지에 따라 전대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세 당권 주자들은 지난 3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나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련된 행사장 헤드테이블에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정 전 대표가 나란히 앉아 웃으면서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테이블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함께 앉았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은 이날 행사장 밖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진영계가 지지하는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검찰 개혁 등을 두고 정 전 대표를 공격했고, 정 전 대표는 경쟁주자인 김 전 국무총리와 송 의원 등을 겨냥해 선명성을 강조하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원구성 마무리...본격 의정활동

상임위·특위 구성 완료...11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수정당 "배려 부족" 반발...권역별 대표성 논란도 제기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전반기 의정 운영 체계를 갖췄다. 다만 상임위원장 11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소수정당의 반발과 권역별 대표성 논란도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는 지난 3일 제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기획재정, 행정소방, 미래산업, 농수산,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안전건설,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교육 등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임위원장 11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다. 전남권 의원이 기획재정·행정소방·농수산·기후환경에너지·일자리경제·안전건설·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맡았고, 광주권 의원은 미래산업·도로교통·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이끌게 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신민호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춘욱 위원장과 21명,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선준 위원장과 15명,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강현 위원장과 13명으로 꾸러졌다.

특히 운영위원장과 시정·교육청 예결특위위원장 등 핵심 3개 위원회 수장은 모두 전남 동부권 지역 구 의원이 맡게 됐다. 통합의회는 지난 1일 첫 본회의에서 의정단을 선출하고 필수 조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하면서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9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통합특별시의회의는 광주권 지역구 24명, 전남권 지역구 55명, 비례대표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장 11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다. 전남권 의원이 기획재정·행정소방·농수산·기후환경에너지·일자리경제·안전건설·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맡았고, 광주권 의원은 미래산업·도로교통·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이끌게 됐다.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 등 핵심 3개 기구 49석 가

운대 전남권 의원은 27석(55.1%), 광주권 의원은 15석(30.6%), 비례대표는 7석(14.3%)을 차지했다.

소수정당에도 일부 참여 기회는 주어졌다. 시정 예결특위에는 박형대 진보당 의원이, 운영위원회에는 장성해 조국혁신당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교육청 예결특위는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됐다.

상임위원회 배치에 따른 권역별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실은 상임위원회 기준에 따라 광주청사와 전남청사로 나눠 배치될 예정이어서 일부 의원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 또 농수산위원회와 안전건설위원회에는 광주권 지역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전남권 지역구 의원이 각각 배치되지 않아 특정 권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임위원회 구성안 표결에서 기권한 윤민호 진보당 의원은 "조정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형근 의장은 "7월 1일 출범한 제1대 통합특별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오늘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의정 체계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통합특별시, 홍보 플랫폼·인터넷방송 통합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전남 통합 출범에 맞춰 양 지역이 각각 운영해 온 온라인 홍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홍보종합플랫폼과 인터넷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홍보 채널의 명칭과 디자인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 대상 홍보 플랫폼인 '모두의 광주'가 '모두의 전남광주'로 새롭게 단장한 것

이다. 플랫폼은 뉴스와 미디어, 소식지, 시민광장 등으로 메뉴를 재구성하고 웹디자인을 개선해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생활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제공 범위도 광주 중심에서 전남 전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전남 도정소식지인 '전남새뜸'을 연계하고, 광주와 전남 27개 시·구·군의 소식지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소식지' 메뉴를 신설해 지역별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시민 참여 기능도 강화했다. '시민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며, 광주소셜기자단과 전남SNS서포터즈, 오매광주기자단이 제작한 기사와 공식 SNS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인터넷방송도 '전남광주TV'로 통합됐다. 시정 뉴스와 주요 행사 생중계, 정책 홍보 영상 등 광주와 전남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TV'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우선 적용한 명칭으로, 오는 9월 시민 공모를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송홍 기자

전남광주 해수욕장 52곳 손님맞이 시작

10일부터 순차 개장...안전관리 강화·해양레저·축제 콘텐츠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12개 시군 52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레저와 갯벌체험, 문화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해 이용객 60만 명 유치에 도전한다.

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올해는 장흥 수문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이어 목포의 달도, 여수 만성리, 보성 율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지역 대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에 여를 관광객을 맞는다.

특별시는 '쉽고 즐거움으로 다시 찾는 해수욕장'을 목표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총 72억원을 투입해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을 추진했다. 샤워실과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질과 배사장 토양,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1일에는 12개 시군과 함께 개장 전 최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대책, 이용자 편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인명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해수욕장마다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및 안전시설 3400여 대를 배치하고, 소방과 해양경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피서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바가지요금과 이른바 '알박기' 행위도 집중 관리한다.

파리솔과 평상 등 편의시설 이용요금을 사전에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욕장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수 웅천과 완도 신지명사십리, 진도 가계 해수욕장에서는 카약과 패들보드,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는 오는 18~19일 전국 서핑대회가 열린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함평 돌머리에서는 맨손 고기잡기 체험이 마련되고, 장흥 수문에서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실과 해변 문화행사가 열린다. 영광 가마미에서는 썸머페스티벌, 완도 신지명사십리에서는 플라잉보트쇼와 맨발걷기대회, 해남 송호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보성 율포솔밭과 무안 낙지공원에서는 갯벌 체험도 즐길 수 있어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남도의 자연과 생태를 함께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여수 웅천 해수욕장